

리창(李强) 교수의 빈소 마련

중국 칭화대학 사회학과 리창(李强) 교수가 2023년 12월 12일 오후 2시 19분에 영면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사회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한국에 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2012년에는 위험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관하여 서울, 베이징, 동경 시민을 상대로 최초의 방대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리창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중민재단은 빈소를 마련하여 조의를 표하시길 원하는 동료 교수 등 문상객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 기간: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2시-10시
- 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은곡빌딩 4층

(문의: 02-875-8474, 010-5283-4243)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로 나오세요. (도보 약 2분 소요)



☞ 차량으로 오실 경우, '태양주차장(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17)'의 주차권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조사 (弔詞) -

중국 칭화대학교의 위대한 사회학자 리창 교수를 추모하며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명예교수)

참으로 슬프고 애통하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이며 뜻을 같이 해온 동지인 중국 칭화대 사회학과의 리창교수가 2023년 12월 12일 오후 2시 19분에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허전함을 느낀다. 그는 중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칭화대 사회학과를 실질적으로 창설하여 이끌었으며 사회계층, 사회협치, 도시발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중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의 한 사람이다. 학계만이 아니라 행정부 및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참여적 지식인의 모범이다.

지난 4월 20일, 내가 칭화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를 영접하며 칭화대 동료들과 함께 여러 얘기를 나누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 난다. 코로나 19가 창궐하던 몇 년 동안 나 역시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몸이 아팠다고 들었다. 그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도 4월 20일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랫동안 그를 만나보지 못했던 칭화대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리창 교수는 예상을 깨고 나를 환영할 생각으로 모임에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 그의 우정과 배려에 어찌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를 만나자 마자, 그는 내가 2016년 깊게 관여하여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어떤 상태며, 칭화대를 방문하여 큰 학술행사를 치렀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정치발전과 사회변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날 리창 교수는 파란색 얼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초롱초롱한 눈빛과 제스처 및 말소리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최근에 출판한 저서 <기층치리(基層治理)>에 관한 얘기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40 여분간 대화를 이끌었다. 아울러 2012년 우리가 베이징, 서울, 동경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던 제 1 차 설문조사의 뒤를 이어, 제 2 차 조사를 속히 하자는 합의도 이루었다. 우리는 기념사진도 찍었고 그는 인상적인 포즈를 취하며 떠났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나도 전혀 몰랐고 그 자리의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뒤, 7 월 8 일 중국 천진 난카이 대학에서는 중국사회학회 2023 년도 학술대회가 열렸고 리창 교수는 “중국식 현대화와 사구치리 혁신 (中国式现代化与社区治理创新)”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개설했다. 나는 이 세션에 참여하여 리창 교수가 선도했던 Qinghe 협치 실험의 의미를 국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리창 교수의 많은 제자들이 이 세션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했고 우리는 집단 사진도 찍었다. 리창 교수는 이 모임을 직접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양해가 된 상태였지만, 다들 그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믿었기에 누구도 금년이 가지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날 줄은 미처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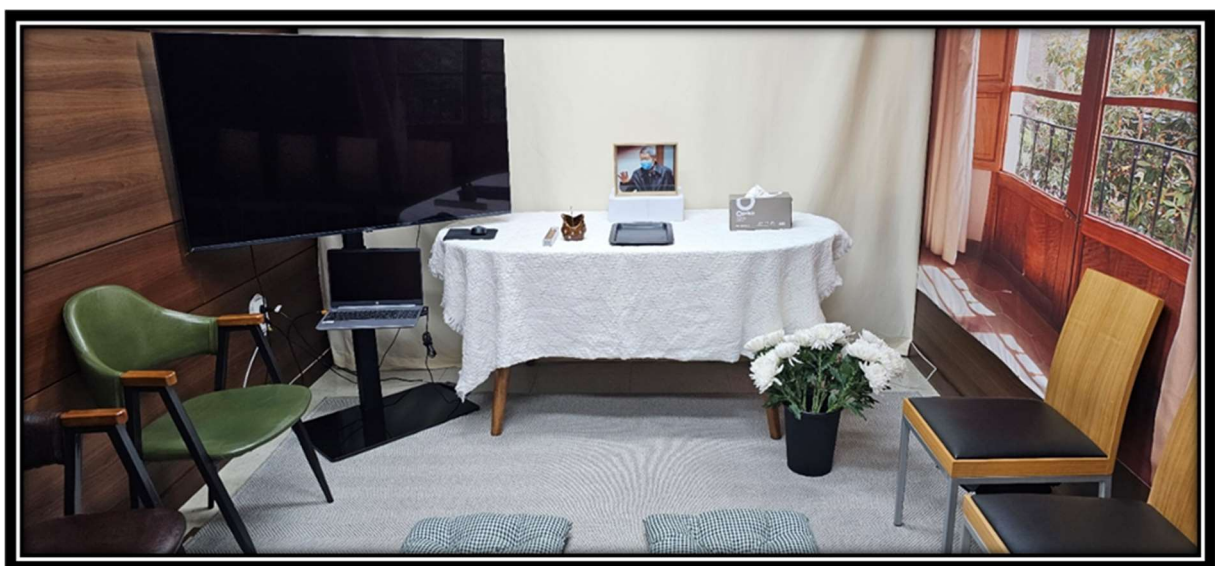
리창 교수의 열정이 묻어 있고 내가 가끔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Qinghe 실험은 매우 특이하고 창조적인 사회협치 모델이다. 칭화대학 연구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주민들을 교육하고 이들과 협의하여 주민 자치기구들을 만들고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주거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국가나 시장의 역할에 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약한 중국의 현실에서 이 실험이 중국의 미래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고 풍부하다.

개인적으로 회고해 보건대, 리창 교수는 나에게 특별히 매우 친절했지만 나는 그만큼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내가 2010 년에 서울대에서 정년을 하자 그는 나를 칭화대 초빙교수로 1 년간

초청하면서 숙소를 제공했고 특별한 강의 부담 없이 연구를 계속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달 1 만 위안의 사례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2 년은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관계 수립 20 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나는 서울시의 재정도움을 얻어 서울과 베이징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민의식조사를 계획했다. 그 때 칭화대 사회대 학장이었던 그는 주저 없이 나의 제안을 수용하여 우리는 각자의 재정으로 방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자주 서로를 방문하며 학술대회를 열면서 깊은 연대의 마음으로 친교를 맺었다.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이자 동지인 리창 교수가 아직도 한참 같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나로서는 슬픔을 가늠 길이 없고 세상은 허망할 뿐이로다. 중국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지닌 사회학자가 우리를 떠난 것은 동아시아 사회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손실이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내가 존경해온 친구가 부디 고통이 많은 속세를 떠나 저 세상에서 평화와 휴식의 영면을 취하시기를 빈다.



➤ 중민재단 사무소에 차려진 리창(李强) 교수의 빈소



Funeral Condolence

In memory of Professor Li Qiang, a great sociologist at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Han, Sang-jin

(Professor Emeritus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rful and mournful!!

Upon hearing the sad news that my long-time friend, colleague, and comrade, Professor Li Qiang of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passed away at 2:19 PM on December 12, 2023, I feel heartbreaking sadness and emptiness.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Chinese Sociological Association, founded and led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singhua University, and is one of China's leading sociologists who has mad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social class, social governance, and urban development. He is an example of a participatory public intellectual who had a great influence not only on academia but also on the administration and Chinese political leaders.

On April 20th 2013, when I visited Tsinghua University with Prof. Xiangqun Chang of Global China Academy from London, I vividly remember him welcoming us though his health was not very comfortable and talking about various things with his Tsinghua University colleagues. I could not visit China since 2019 during the years when COVID-19 was raging. Meanwhile, I heard he was sick with COVID-19 and also heard that he was recovering well. Nevertheless, I could not expect him to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on April 20th. His colleagues at Tsinghua University, who had not seen him for a long time, also had the same thought. However, Professor Li defied expectations and came to the meeting with the intention of welcoming us. So how could I not be deeply touched by his friendship and compassion!

As soon as he met me, he asked me about the status of the People's Party, which I was deeply involved in and founded in 2016, and about Seoul Mayor Park Won-soon, who visited Tsinghua University and held a large academic event. He still expressed deep interest in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Professor Li Qiang was wearing a blue face mask that day, but his bright eyes and speaking voice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ast. The conversation lasted about 40 minutes about his recent publication, <Grassroots Governance> and his future activities. Following the first survey targeting citizens of Beijing, Seoul, and Tokyo in 2012, we also reached an agreement to conduct a second round of survey soon. We

took a commemorative photo and he left with an impressive pose. I had no idea that this would be my last meeting with him, and no one there would have guessed

Then, on July 8, the 2023 Chinese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at Nankai University in Tianjin, China. Professor Li Qiang opened a session titled “The Chinese Style of Modernization and Innovations in Grassroots Governance.” I participated in this session and presented a paper highlighting the meaning of the Qinghe social governance experiment led by Professor Li from a global perspective. Many of Professor Li's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ession and presented papers, and we also took a group photo. It had already been agreed that Professor Li would not personally preside over this meeting, but since everyone believed that his health had greatly recovered, no one would have imagined that he would pass away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 Qinghe experiment, which Professor Li Qiang was passionate about and which I have occasionally visited, is a very unique and creative social governance model. The process in which Tsinghua University researchers participated in the local community, educating residents, consulting with them to create local residential organizations, and rebuilding neighborhood communities with these organizations at the center is truly impressive. In China's reality, where the role of civil society is weak compared to the role of the state or market, the implications of this experiment for China's future are very large and rich.

Looking back personally, Professor Li Qiang was especially very kind to me, thu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him. When I retir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0, he invited me to Tsinghua University as a special visiting professor for a year, provided me with accommodations, asked me to continue my research without the burden of offering courses, and gave me an honorarium of 10,000 Yuan per month. Furthermore, since 2012 wa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I planned a full-scale questionnaires survey targeting citizens in Seoul and Beijing with financial help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vividly remember that he, who was the dean of Tsinghua University's College of Social Sciences at the time, accepted my suggestion without hesitation, and we conducted an extensive survey research using the budget that each can spend. Thereafter, we have established a strong solidarity of friendship by visiting each other frequently and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Such a close friend and comrade passed away unfortunately at an age when we could still work further together and fruitfully. I find no way to contain my sadness and I feel that the world is just empty. It is, indeed, a great loss and a pity for East Asian sociology too that a sociologist with far-sighted insight into China's future has left us.

I sincerely pray that my respectable friend now leaves this troubled world of secular life and takes eternal rest and peace in the other world.



悼词

悼念中国清华大学伟大的社会学家李强教授

韩相震(首尔大学社会学系名誉教授)

惊闻中国清华大学社会学系李强教授因病于 2023 年 12 月 12 日 14 时 19 分离世的消息，心情无比悲痛。李强教授作为我多年的好友，既是社会学界的同仁，也是志同道合的同志。他不仅直接参与清华大学社会学系的创立，而且引领清华大学社会学系取得了前所未有的辉煌。他在社会阶层、社会治理、城市发展等领域取得了卓越的业绩，是公认的中国最杰出的社会学家之一。李强教授不仅在学界有着骄人的成就，也是一位对政府相关职能部门和决策者提供咨询服务的专家学者，是一位难得的参与式知识分子的典范。

记得去年 4 月 20 日，我到访清华大学时，李强教授虽身体有些不适，但仍亲自到校接待我，并与清华大学社会学同仁一道，进行坦诚的学术座谈。其实在新冠疫情肆虐的那几年间，我是无法再访中国。期间，也听闻李强教授感染了新冠病毒，身体多有不便的消息。后来也打听到他恢复的很好，但仍隐约地感觉到他无法参加 4 月 20 日的聚会。好长时间未能见到李强教授的清华大学社会学同仁们也有同样的想法。然而，出人意料的是当日李强教授拖着虚弱的身体亲自到场参加了那次聚会。面对李强教授如此的诚意、关怀和友情，岂能不为之动容呢。

当时，李强教授一见到我就关切地问道 2016 年我全心介入并新创建的国民之党的现况，还询问了曾到访清华大学并主持了大型学术会议的前首尔市长朴元淳的近况。他还是一如既往地关注韩国的政治发展及社会变动。他虽然佩戴蓝色的口罩，但他那炯炯有神的眼神和沉稳的语调却始终如一。我们彼此围绕着他的新著《基层治理》以及今后的学术活动进行了大约 40 分钟的交谈。我们达成了继 2012 年在北京、首尔和东京进行的第一轮问卷调查，有必要开展第二轮问卷调查的共识。我们还一起拍下了合影，他也摆出了让人留恋忘怀的姿势之后就离开了。当时我连想都没敢想这竟是我们之间的最后一次相见，不仅仅是我，那天在场的所有同仁也都未曾预料到那是最后的道别。

今年 7 月 8 日在南开大学召开的 2023 年中国社会学年会上，设有由李强教授主持的主题为《中国式现代化与社区治理创新》的分论坛。我应邀参加了这场分会并发表了以全球视野来考察李强教授主导的清河社区治理实验的意义和价值为内容的论文。李强教授的诸多学子们也参加了该分论坛，并发表了高质量的研究论文。我与他们还合影留念。遗憾的是，因健康原因李强教授未能亲自莅临并主持此分论坛，但我和其他参会者都坚信他的病情会好转并早日得以康复。可未想到 2023 年即将过去的这一刻，他却永远地离开了我们。

承载着李强教授的学术热忱的清河实验项目，是一个非常独特且富有创意的社会治理模式。我也曾亲临现场进行过观摩和考察。清华大学的研究人员参与社区，教育居民，并与他们协商建立居民自治机构，并以此机构为中心重建居民共同体的这一系列过程和程序，特别令人印象深刻。比起国家和市场的功能公民社会的作用相对弱小的当今中国的现状而言，清河实验对未来中国社会的启示的确是深刻而丰富。

回想起来，李强教授对我格外亲切友好，对此我不胜感激，只是我未能给予回报深感歉意。2010 年我从首尔大学正式离任之后，李强教授邀请我担任为期一年的清华大学客座教授，并为我提供住宿和每月一万元人民币的酬金。为了打消我的顾虑特意告知我无需承担教学任务，专心搞学术研究。因 2012 年是首尔和北京缔结友好城市 20 周年，我获得了首尔市的专项资助，开始策划在首尔和北京面向城市居民进行深度的公民意识调查。时任清华大学社会科学学院院长李强教授毫不犹豫地接受了我的建议，我们各自以自己的经费一同进行了规模庞大的问卷调查。以这次合作为契机，我们经常进行互访，举办学术会议，并在广泛的学术交流中，建立了深厚的友谊。

这样一位亲密无间的朋友和同志，李强教授在学术研究上正当年的年华里离世而去，令人无比悲痛与惋惜。拥有能够展望中国之未来的睿智和慧眼的社会学家——李强教授的离世，不仅是中国社会学界的巨大损失，也是整个东亚社会学界的一大损失。

祈愿李强教授在天堂永享安宁！

